

한국인의 통일의식과 태도의 장기적 변화 분석: 1985-2010¹⁾

은기수 (국제대학원)

1. 들어가는 말

1945년 해방과 함께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60년이 지나고 있다. 30년을 한 세대라고 한다면 한반도에서 분단의 시간은 두 세대가 넘게 흐르고 있는 것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맞다면 10년을 여섯 번이나 경과한 지금 남한과 북한은 전혀 다른 사회라고 볼 수도 있다. 한반도에서 전혀 다른 두 사회로 존재하는 남한과 북한이 언젠가는 통일되어야 한다는 원론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언제, 어떤 조건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수많은 의견이 존재한다. 통일이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눈시울이 뜨거웠던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통일을 떠올리면 감격과 기쁨보다는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부담과 희생이 뒤따라야 하는지 계산을 해보는 시대가 되어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한과 북한 사회 사이에 이질성이 증가하고, 통일이 된다고 해도 남한과 북한이 사회적으로 완전한 통합을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통일비용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통일이 되는 경우 개인과 국가가 짊어질 엄청난 규모의 부담은 일반인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누그러뜨리는데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통일은 남한과 북한이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제도, 가치, 생활양식 등 제도적인 측면과 국민들 간의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여년전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던 독일이 예상치 못했던 통일을 맞이했듯이, 남한과 북한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통일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남한과 북한 사이에 가로막혔던 장벽이 허물어지고 통일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불완전한 통일일 수밖에 없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인 통합이 뒤따라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일상생활에서 남한과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 사이에 통합이 이루어져 정서적으로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 사이에 구분, 구별, 차별이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²⁾

이런 점에서 남한의 주민들은 통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통일의 대상인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남한의 주민들이 통일과 북한에 대해 지니고 있는 태도를 이해하는 것은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정권의 차원에서는 통일이 매우 정략적으로 이용되어 왔고, 통일에 대한 남한 주민의 의식과 태도도 이에 큰 영향을 받아왔다. 그러나 통일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정부도 일반인들의 정서나 태도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통일정책이나 대북정책을 실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남한 주민들의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

1) 이 연구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연구과제 결과이다. 이 연구를 지원해 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소장 박명규 교수)에 감사드린다. 이 연구에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회조사 자료가 활용되었다. 이 연구를 위해 귀한 자료를 제공해준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사장 석현호)에 감사드린다. 또한 중앙일보 조사 자료를 제공해 준 신창운 기자 및 한국갤럽의 박병일 이사께도 감사드린다. 아울러 오랜 기간동안 이 자료를 입력하고 정리하는데 수고해준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유리, 이은경, 송두리, 조수민, 김보아 등 여러 대학원생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2) 이 연구에서는 남한의 주민, 국민, 한국인 등을 혼용하여 사용한다.

과 태도를 파악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연구는 남한 주민들이 지닌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지난 수십년 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통일과 북한에 관해 실시되어 온 여러 형태의 사회의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의식과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통일과 북한에 대한 태도와 의식은 다양한 영역에서 조사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 모든 측면의 의식과 태도를 살펴볼 수는 없고, 다음과 같은 측면에 한정해서 남한 주민의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의식과 태도의 장기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통일에 대한 인식이다. 이 영역에는 통일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져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 소위 통일의 방식과 시기를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구체적으로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통일의 시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셋째,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이유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연구를 위해서 지난 20여년동안 여러 형태로 실시되어 온 북한과 통일관련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자료(raw data)를 다시 직접 분석하기도 하고, 원자료를 사용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고서 형태로 제시된 이차자료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 연구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온 표본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대학생이나 중고등학생 혹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는 이 연구에 포함하지 않는다.

2. 기존연구 검토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의식과 태도에 관한 조사는 많지만 이를 학문적으로 분석한 연구 가운데 이 연구에서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연구는 많지 않아 보인다. 이 분야에 관한 기존 연구 가운데 김현옥(2001)의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김현옥의 연구결과는 2001년에 발표되었다. 김현옥의 연구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후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남북사이의 화해를 강조하고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민의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의식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세간의 논의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현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통일의식이 실제로 변화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김현옥, 2001: 65-67). 첫째, 국민의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의식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성이 크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거나 완화되는 사건에 따라 국민의 의식과 태도는 매우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반공이데올로기가 강력했던 한국 사회에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태도가 하나의 사건이라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급격히 바뀌기 힘들다는 것이다. 셋째, 통일의식은 개인의 정치적 지향성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통일에 대한 태도나 의식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넷째, 통일의식이란 단순히 통일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통일을 자신과 관계있는 것으로 연결시켜야만 비로소 통일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현옥(2001)은 통일과 북한에 관한 의식과 태도의 변화에 관해 매우 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김현옥이 지적한대로 통일과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태도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상당히 크게 변할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각각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한 직후에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낮아지고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이나 2010년 천안함, 연평도 포격사건 등을 경험하면 북

한에 대한 경계 혹은 적대적인 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의식이나 태도는 개인의 정치적 지향성뿐 만 아니라 시기적 요인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시기적 영향(period effect)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반공 이데올로기가 강력했던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태도나 의식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기 힘들다는 주장은 얼마나 사실과 부합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북한과 통일에 대한 태도나 의식이 개인의 정치적 지향성에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그럴 가능성은 크지만 국민의 북한과 통일에 관한 의식과 태도가 개인의 정치적 지향성에 따라 좌우된다는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 김현옥의 주장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소위 의식조사, 여론조사, 태도조사에서 나타나는 국민의 북한과 통일에 관한 의식과 태도는 시기적인 요인에 큰 영향을 받아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은 기억해 두어야 한다.

국민의 북한과 통일에 관한 의식과 태도가 시기적인 요인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개인의 정치적 지향성이나 한국 사회에 오랫동안 내재해 온 반공이데올로기와 같은 이데올로기의 강력한 영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통일과 북한에 대한 태도나 의식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태도를 장기적으로 관찰하면 한국인의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는 김현옥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가정해도 타당하다. 예를 들어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태도가 개인의 정치적 지향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김현옥의 주장이 맞다고 하자.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정치적 지향성은 변하지 않았을까?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정치적 지향성도 지난 수십년간 분명 변화하고 있다. 개인의 정치적 지향성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민주화가 성숙되면서 과거처럼 보수적인 색채로만 남아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기 힘들다. 한국사회에서 정치적인 지향성이 좀더 다양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면 분명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태도나 의식도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해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반공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이다.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강력한 반공이데올로기는 일반인의 가치, 태도, 의식에 깊은 영향을 남겼지만, 반공이데올로기의 강도와 내용 또한 한국 사회에서 변해갔다. 1970년대에 초중고를 다닌 세대와 1990년대에 초중고를 다닌 세대 사이에 반공이데올로기의 영향은 동일하지 않다. 독재정권 하에서 반공이데올로기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에게 미친 반공이데올로기의 영향은 비교적 개방적이고 민주화된 시대에 반공이데올로기 교육을 받은 세대에게 미친 영향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할 것이다. 그러나 젊은 세대로 올수록 반공이데올로기의 영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젊은 세대가 지배적인 세력이 되어가는 한국 사회에서 전체 국민의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의식과 태도는 변할 수밖에 없다.

한 개인의 생애과정(life course) 상에서도 의식과 태도는 변할 수 있다. 더욱이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의 의식과 태도라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을 구성하는 세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의식과 태도는 변할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개인의 생애과정 상에 태도나 의식의 변화가 없다고 해도, 통일과 북한에 대해 보수적이고 적대적인 태도가 강한 나이 든 세대를 좀더 진보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표방하는 젊은 세대가 대체해 나가기 때문에 통일과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체 국민의 차원에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태도나 의식은 변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과 태도의 변화는 언제나 일직선적으로 변화해가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시기적인 요인, 즉 상황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남북간 관계의 변화에 따라 긍정과 부정을 반복하면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부침을 겪는 변화의 양상을 띠는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3. 자료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의식과 태도의 장기적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다양한 사회의식조사 자료이다. 원자료(raw data)를 직접 분석한 경우도 있고, 원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고서 형태의 이차자료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다음 <표 1>은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

연도	조사명	조사기관	자료형식
1985	국민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현대사회연구소	보고서
1986	전환기의 한국사회조사 1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87	국민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현대사회연구소	보고서
1987	전환기의 한국사회조사 III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88	전환기의 한국사회조사 IV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89	한국사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서울대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1989	한민족공동체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통일부	보고서
1990	전환기의 한국사회조사 VI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90	통일정책추진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통일부	보고서
1991	통일정책추진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통일부	보고서
1993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통일연구원	보고서
1994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통일연구원	보고서
1994	통일문제관련 여론조사	문화방송	보고서
1995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통일연구원	보고서
1996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공보처	보고서
1998	창간 34주년 국민의식조사	중앙일보	보고서
1998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통일연구원	보고서
1999	창간 35주년 국민의식조사	중앙일보	보고서
1999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통일연구원	보고서
2001	창간 36주년 국민의식조사	중앙일보	보고서
2002	창간 37주년 국민의식조사	중앙일보	보고서
2003	창간 38주년 국민의식조사	중앙일보	보고서

2003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2004	창간 39주년 국민의식조사	중앙일보	보고서
2004	일반국민 통일여론조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고서
2004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2005	광복 60주년 기념 '통일방송연구' 발간을 위한 국민통일의식조사	KBS 방송문화연구소	보고서
2005	창간 40주년 국민의식조사	중앙일보	보고서
2005	일반국민 통일여론조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고서
2005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통일연구원	보고서
2005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2006	창간 41주년 국민의식조사	중앙일보	보고서
2006	일반국민 통일여론조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고서
2006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2007	창간 42주년 국민의식조사	중앙일보	보고서
2007	일반국민 통일여론조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고서
2007	통일의식조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2007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2008	창간 43주년 국민의식조사	중앙일보	보고서
2008	통일의식조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2009	국민통일여론조사 1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고서
2009	통일의식조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2009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2010	국민 통일의식 조사	KBS 남북협력기획단, KBS 방송문화연구소	보고서
2010	1/4분기 국민 통일의식 여론조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고서
2010	통일의식조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4. 통일에 대한 인식의 장기적 변화

이 절에서는 남한 주민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과 통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분단의 역사가 오래되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다음 <표 2>는 2005년과 2010년 등 최근 두 시기에 걸쳐 우리 국민의 통일에 관한 관심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5년 동안의 변화이기 때문에 변화의 폭은 크지 않지만, 현재 한국인의 통일에 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시사하고 있다.

<표 2>통일에 대한 관심

관심도	2005	2010
매우 관심이 있다	25.1	27.4
대체로 관심이 있는 편	48.6	49.1
별로 관심이 없는 편	24.1	20.9
전혀 관심이 없다	2.1	2.6

자료: KBS

전 국민의 1/4 이상은 통일에 대해 여전히 매우 관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전 국민의 1/2은 통일에 대해 매우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관심이 있는 편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혀 관심이 없거나 별로 관심이 없는 국민보다 통일에 대해 관심이 있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 관심이 어떤 관심인지는 모른다. 통일여부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고, 통일에 따르는 비용부담 등 통일과 연관된 관심일 수도 있다. 또는 최근 북한의 사정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급격한 붕괴가 일어나고 한국도 독일처럼 예상치 못한 시점에 통일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비롯된 관심일 수도 있다. 어쨌든 현재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고, 통일이 안 되면 분단비용이, 통일이 되면 통일비용이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일에 크든 작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훨씬 많다. 그리고 2005년에 비해 2010년에는 통일에 관심이 있다는 비율이 소폭이지만 증가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관심 중 가장 큰 관심의 하나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는가에 관한 관심이다. 통일지상주의자들은 통일의 형태에 관계없이 무조건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신중론자들은 통일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니 통일 자체보다도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지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통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통일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마다 다양한 태도가 존재하는데 한국사회에서 통일의 방식과 시기에 관한 태도가 어떻게 변해왔을까?

이 연구는 1980년 후반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통일에 대한 의식과 태도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1980년 후반에도 무조건 통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은 소수를 차지하고 있다. 1985년에 현대사회연구소의 조사는 이념에 상관없이 무조건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자유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면 차라리 분단되어 있는 것이 낫다는 입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했을 때 통일지상주의적 입장은 응답자의 1/5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머지 4/5는 통일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무조건 통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3>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인식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북한의 체제를 수용하더라도 빨리 통일하는 것이 좋다	21.3	21.0	13.5	19.2	8.1	8.0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리며 동질성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73.2	66.0	75.5	59.8	63.4
북한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로 변화시켜 통일하는 것이 좋다	78.7				26.0	22.9
현재의 분단상태도 괜찮다		3.4	3.7	3.6	3.7	3.3
관심이 없다		2.5	16.8	1.6	2.2	2.2
무응답				0.1	0.2	0.2

자료: 1985, 1987 현대사회연구소; 1986, 1988, 1990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89 서울대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주: 1) 1985 현대사회연구소 조사는 갑: 정치이념에 상관없이 하루 빨리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을: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이 아니면 차라리 분단되어 있는 편이 낫다 가운데 택일을 하게 한 응답의 결과임.

2) 1986, 1988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조사는 1. 어떠한 댓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한 빨리 통일하는 것이 좋다, 2.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3. 현재 대로가 좋다, 4.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3) 1987 현대사회연구소 조사는 1. 어떠한 댓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한 빨리 통일하는 것이 좋다, 2.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3. 현재 대로가 좋다, 4. 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심지어 북한 체제를 수용하더라도 빨리 통일하는 것이 좋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소수에 불과하고 대신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든지, 아니면 동질성 회복에 노력하거나 북한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로 변화시켜 통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비율이 1980년대 후반에도 증가하였다. 1990년의 경우 통일지상주의적인 태도를 지닌 비율은 전 국민의 8%에 불과했다. 그러면서 분단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도 괜찮다거나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태도를 지닌 국민의 비율도 매우 소수에 머물렀다. 1980년대 후반기는 먼저 통일에 적합한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통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 강화되어 간 시기이다.

<표 3>에서 중요한 발견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통일지상주의적인 태도가 더 급감했다는 사실이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치르면서 한국사회도 올림픽 이전 시기와 구분되는 한국사회로 이행하기 시작했고, 일반적으로 1988년부터 남북관계가 탈냉전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탈냉전기에 무조건적으로 통일을 먼저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은 매우 소수로 전락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거나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한 후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0년까지의 조사 이후 1990년대와 2000년 초반에 이와 비교할 수 있는 마땅한 자료가 없다. 그런 가운데 <표 4>는 통일의 시기에 관해서 공보처가 1996년에 실시했던 조사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4> 통일의 시기, 1996

당장 통일이 되어야	준비기간을 거쳐 5년 후쯤	준비기간을 거쳐 10년 후쯤	기타	원하지 않는다	모름/무응답
9.6	30.2	46.6	1.9	5.7	6.0

자료: 공보처

1996년에도 1990년에 이어서 당장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9.6%에 불과하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10년 후쯤 통일이 되거나(46.6%) 통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5년후쯤 통일을 이루는 것(30.2%)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1990년의 결과와 비교하면 비슷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996년에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990년에 비해 감소하고, 대신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르거나 무응답까지 포함한다면 1990년에 비해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0년대에는 1996년의 조사 결과가 있고, 더 이상 비교할만한 자료가 없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존재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조사한 자료와 지난 2007년부터 지속적인 통일관련 조사를 시작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대에는 어떤 태도가 두드러지는지 살펴보자. <표 5>와 <표 6>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워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응답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표 5>는 위의 <표 3>과 거의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5>에서 남북한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빨리 통일되어야 한다는, 통일지상주의적인 태도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0% 정도에 머물고 있다. 반면에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태도는 2007년에 70.6%를 기록한 후 약간씩 증감을 기록하지만 지난 4년 사이에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반면에 1980년대 후반에는 비율이 매우 낮았던, 통일을 하지 않고 분단상태인 현재대호가 좋다는 태도를 지닌 국민의 비율이 2007년에는 11.8%를 기록한 후 이후에는 15-16%로 더 증가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비율도 1980년대 후반 보다 더 높다.

<표 5> 남북한 통일에 대한 생각, 2007-2010

통일에 대한 인식	2007	2008	2009	2010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빨리 통일되어야	10.6	9.2	8.6	10.0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70.6	65.8	68.3	66.9
현재대호가 좋다	11.8	16.3	15.6	16.1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	7.0	8.6	7.5	6.9

자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1980년대 후반과 2000년대 후반의 약 20년 사이에 통일지상주의자와 같은 태도를 지닌 국민의 비율은 별로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분단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지닌 국민의 비율이 지난 20년 사이에 증가한 것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태도를 지닌 국민과 분단상태인 현재대호가 좋다는 입장을 합하면 2010년에는 전 국민의 1/4을 차지한다. 1980년대 후반에는 통일을 하되 점진적으로 여건을 성숙시켜

해야 한다는 입장이 압도적이었는데, 20여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인의 1/4은 통일을 바라고 있지 않거나 통일에 무관심한 상황이 되었다. 분단이 고착화되고 통일이 쉽지 않는데, 설혹 통일이 되는 경우 물리적 통일뿐만 아니라 완전한 통일에 이를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는 한국인은 점차 통일을 거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6>은 통일의 시기를 위의 <표 3>이나 <표 5>와는 다른 워딩을 사용하는 경우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6> 통일의 시기, 2004-2010

시기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36.4	18.9	14.6	20.8	14.9	17.2	17.4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53.4	64.2	60.7	56.0	68.4	63.9	65.6
현재가 낫다	6.6	11.7	18.5	18.5	10.8	12.2	10.7
통일은 불가능	2.9	5.2	6.2	2.5	5.9	6.6	5.9
무응답	0.7	0.0	0.0	2.3	0.1	0.2	0.5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빨리 통일을 이루어야” 라는 워딩 대신에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라는 워딩으로,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대신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야” 라는 워딩이 사용되었을 때 응답의 경향은 <표 3>이나 <표 5>와는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라는 표현이 삭제되고 단순히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태도를 지닌 비율이 높아진다. 그러나 <표 6>에서 볼 수 있는대로 2000년대에 시간이 지나면서 역시 통일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라는 의식은 감소하고 반면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라는 태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증감이 반복되고 있지만 통일을 이루는 것보다 현재의 분단상태로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표 6>에서 제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실시해 온 조사 결과는 2000년대에 걸쳐 통일의 시기에 관한 태도가 진동(fluctuation)을 거듭하면서 하루 빨리 통일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좋다는 신중한 태도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절에서 발견된 장기적 변화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북관계가 냉전기였다고 할 수 있는 1985년, 1986년까지는 한국인들 사이에 어떤 체제가 될지 몰라도 통일을 빨리 이루어야 한다는 태도를 지닌 비율이 전체 국민의 1/5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색된 남북관계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1988년부터는 남북한이 무조건 빨리 통일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나타내는 국민들의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대신 통일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든지, 북한을 자유민주주의로 전환한 후 통일해야 한다는 식의 신중한 태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또한 분단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남과 북의 격차가 커지면서 통일하는 것보다 현재와 같이 분단상태로 머무는 것이 낫다는 태도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5. 통일의 가능성 및 통일의 구체적 시기에 대한 태도의 장기적 변화

위의 4절에서는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지, 이루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의식과 태도의 장기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구체적으로 통일이 가능한 시기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었는지 그 장기적 변화를 살펴본다.

1980년대 후반기는 남북관계가 냉전기에서 탈냉전기로 전환하는 시점이었다. 남북관계가 냉전기였을 때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남북관계가 해빙기로 접어들었을 때는 남북이 통일될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다. 다음 <표 7>은 남북관계가 냉전기에서 탈냉전기로 변해가는 1980년대 후반에 한국인들은 통일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보여준다.

<표 7> 통일의 가능성, 1986-1989

가능성	1986	1987	1988	1989
커졌다	15.8	18.0	48.2	51.4
마찬가지이다	60.6	65.2	46.8	44.4
줄어들었다	23.4	16.8	4.9	4.0
잘 모르겠다	0.2	-	0.1	0.1

자료 : 1986, 1988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87 현대사회연구소; 1989 서울대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

1986년과 1987년은 아직 남북관계가 냉전기 상태에 머물러 있던 시절이었다. 이 시기에는 1986년 조사의 경우 “1970년대에 비해 남북이 통일될 가능성이 어떻냐”는 질문에 대해 마찬가지로 응답한 비율이 61%로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오히려 통일의 가능성이 줄어 들었다는 응답도 23%나 된다. 반면에 통일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해서 이 당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었고, 일반 국민의 눈에 통일의 가능성은 1970년에 비해서도 더 낮다고 생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87년의 조사는 지난 몇 년 전에 비해 통일의 가능성이 어떠한지를 평가하라고 했는데, 이 역시 통일의 가능성이 지난 몇 년 전에 비해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었고, 통일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86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통일의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감소하고 반면에 통일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응답은 약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88년부터 급속히 변한다. 1988년부터는 지난 몇 년 전에 비해 통일의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고 이 응답의 비율은 통일의 가능성이 변하지 않고 마찬가지로라는 응답의 비율보다 더 높아지기 시작했다. 과거에 비해 통일의 가능성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5%에도 못 미치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표 7>은 1980년대 후반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1987년과 1988년을 즈음하여 국민의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통일이 언제 가능할 것인지 시기를 묻는 물음에 대한 답변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다음 <표 8>은 1986년부터 1990년까지 통일이 가능한 시기에 관한 한국인의 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8> 통일이 가능한 시기, 1986-1990

시기	1986	1987	1988	1989	1990
10년 이내	9.4		16.9	20.7	37.8
25년 이내	20.1		29.6	30.3	
50년 이내	14.7		15.0	18.3	61.7
50년 이후	14.2		12.1	10.4	
불가능	39.9	16.8^	25.3	19.5	
잘 모르겠다	1.7		1.1	0.9	0.5

자료: 1986, 1988, 1990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87 현대사회연구소; 1989 서울대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

주: 1) ^1987년의 불가능의 수치는 1987년 현대사회연구소 조사에서 통일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4) 현실적으로 통일은 불가능하다를 선택한 비율임.
2) 1990년 서울대 조사에서는 10년 이내에 가능한지에 대한 응답률임.

1986년에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시기를 10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범주는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범주로 응답자의 40%가 선택하고 있었다. 그런데 1988년의 조사에서는 10년 이내에 통일이 가능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17%로 2년 전인 1986년에 비해 7% 포인트 증가하고 있고, 25년 이내 통일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1986년과 1988년 사이에 거의 10% 포인트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2년 사이에 15% 포인트 가까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통일이 10년 이내라는 가까운 시기에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1989년에는 21%로 증가하고 있고, 25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30%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표 8>을 통해서 1987년 이후에는 통일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대폭 감소하였고 통일이 곧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낙관적인 태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 9>는 <표 8>과 직접 연결하여 통일의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관해 시계열적인 변화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무엇보다도 통일의 가능성의 시기에 관한 범주가 조사 때마다 다르고 일정하지 않아 시계열적인 변화를 정확히 말하기 힘들다. 그러나 통일의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관한 태도가 얼마나 낙관적으로 변했는지 이해하는 의도로 <표 9>를 이용하자.

<표 9> 남북통일 가능성의 시기, 1989-1991

1989		1990			1991	1993
				2-3년이내	3.7	1.3
5년이내	6.3	5년이내	15.9	5년이내	13.3	6.5
6-10년이내	22.7	10년이내	29.1	10년이내	36.7	37.3
11-15년이내	3.4	15년이내	3.7			
16-20년이내	11.4	20년이내	8.6	20년이내	15.5	23.6
21-30년이내	5.4	30년이내	3.7	20년이상	10.0	7.2
31년이후	5.4	31년이후	2.2			9.2
		가능하지만 시기는 모름	4.8			
불가능	26.2	불가능	23.7	불가능	10.3	13.3
모르겠다	19.1	모르겠다	19.1	모르겠다	10.6	1.5
N	1500		1500		1500	1500

자료: 1989, 1990, 1991 국토통일원; 1993 민족통일연구원

<표 8>의 1980년대 후반 서울대 조사에서 통일이 가능한 시기를 10년, 25년, 50년 등으로 구분했던 것과는 달리 1990년 초반 국토통일원이나 민족통일연구원의 조사에서는 통일가능성의 시기를 5년 단위로 범주화하고 있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1991년과 1993년의 조사에서는 앞으로 2-3년 이내에 통일이 될 가능성까지 범주로 두고 있어 그 당시 통일의가능성의 시기가 매우 가까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89년부터 1991년까지는 10년 이내에 통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91년에는 응답자의 54% 이상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1993년에는 이 비율이 45%로 다시 낮아진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과는 반대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의 비율은 1989년과 1990년에 20%를 훨씬 뛰어 넘을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1991년부터는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10%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다.

<표 9>에 제시된 결과를 <표 8>에 제시된 서울대 조사결과와 직접 비교하기는 힘들다. 무엇보다도 <표 9>에 제시된 결과 가운데 1989년과 1990년의 조사 결과를 보면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19.1%로 나타나 이 조사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또 통일가능성의 시기의 범주가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사이에 많이 달라서 1980년대 후반뿐만 아니라 1990년대 초반의 경향과도 직접 비교하기 힘들다. 따라서 <표 9>에 제시된 결과를 <표 8>의 결과에 이어서 장기적 변화의 시계열적 자료로 직접 이용하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1994년 이전에는 1980년대 후반에 이어서 통일을 불가능하다고 보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고, 반면에 통일이 10년 이내 등 비교적 빠른 시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낙관적인 태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통일이 가능한 시기에 관한 낙관적인 태도가 다음 <표 10>의 1994년 조사 결과에도 드러나고 있다.

<표 10> 남북통일의 시기, 1994

5년내	5년 이상 10년 이내	10년 이상 20년 이내	20년 이상	불가능	기타
20.1	39.4	23.8	10.5	5.6	0.7

자료: 문화방송

1994년의 문화방송 조사에서도 통일이 5년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 5년 이상 10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4%로, 전체 응답자의 60%가 통일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반면에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5.6%로 매우 낮고, 통일을 이루는데 2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장기적인 전망을 하는 비율도 10.5%로 비교적 소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을 기점으로 남북관계는 탈냉전의 기간에도 경색 국면으로 접어든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변화는 실제로 국민들의 통일에 관한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음 <표 11>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통일의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관해 민족통일연구원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11> 남북통일 가능성의 시기, 1994-1999

시기	1994	1995	1998	1999
5년 이내	17.5	9.5	4.7	3.0
10년 이내	56.3	40.9	28.3	27.0
20년 이내	-	26.9	27.1	28.3
30년 이내	18.7	7.1	7.2	7.4
30년 이상	7.1	15.5	10.6	11.3
무응답	0.4	-	22.1	22.9

자료: 1994, 1995, 1998, 1999 민족통일연구원

1994년 조사결과는 무응답의 비율이 0.4%로 매우 낮다. 1994년 조사에서는 통일의 가능성의 시기에 관해 5년 이내에 통일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17.5%, 10년 이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6%로 무려 전체 응답자의 74%가 남한과 북한의 통일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는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

1994년의 조사와는 달리 1995년 조사부터는 20년 이내 라는 범주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범주가 추가된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통일의 가능성 시기가 5년 이내라는 응답이 1995년에는 크게 감소하였다. 1995년에는 응답자의 9.5%만이 앞으로 통일이 5년 이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여 1994년의 17.5%와 대조를 이룬다. 5년 이내와 10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하면 50%를 약간 넘는다.

<표 11>에 제시된 1994년과 1995년의 조사결과를 1998년과 1999년의 조사결과와 직접 비교하는 것도 약간의 무리가 따른다. 무엇보다도 1994년 조사에서는 20년 이내라는 범주가 없고, 1998년과 1999년의 조사결과에서는 무응답의 비율이 20%를 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표 11>에 제시된 결과가 비록 민족통일연구원이라는 동일한 연구기관이 수행해 온 조사에서 나왔다고 해도 시계열적으로 엄밀하게 비교할만한 결과라고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11>에 제시된 결과는 1994년 이후에는 다시 5년 이내 등 매우 가까운 시기에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많이 후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10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확대해 보아도 역시 가까운 시기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전망에서 많이 후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역시 시계열적 자료로 이용하기는 힘들지만 1994년 이전과 1994년 이후의 통일의 가능성의 시기에 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1996년의 조사결과를 <표 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2> 남북통일 가능성의 시기, 1996

5-9년	10-14년	15-19년	20년 이후	불가능	기타
27.0	36.1	9.4	10.7	9.8	7.0

자료: 공보처

1996년에 공보처가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공보처의 조사에서 사용한 범주 중 통일의 가능성을 가장 가깝게 설정한 5-9년 이라는 범주에 응답한 비율이 27%이고, 10-14년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로 나타난다. 1995년의 민족통일연구원의 조사결과와 이어 생각하면 5년 이내처럼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5년 이내의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의 가능성이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으로 읽힐 수 있다. 20년 이후에나 통일이 이루어진다는지 아니면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응답 등을 다 합해도 전체 응답자의 30%에 못 미치고 있어, 한국인들은 1994년 이전보다는 못하지만 1996년까지도 통일이 가능한 시기를 비교적 가깝게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통일의 시기를 가장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자료는 중앙일보가 매년 조사한 자료이다. <표 13>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통일 가능성의 시기를 동일한 문항과 동일한 척도로 보여주고 있다.

<표 13> 남북통일 가능성의 시기, 1998-2008

시기	1998	19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5년 이내	8.2	4.4	1.6	3.3	2.5	5.5	3.1	2.3	3.3	1.7
5-10년	33.8	26.5	26.8	22.7	20.9	23.3	20.2	11.1	18.8	11.1
10-20년	27.4	30.2	27.7	24.8	24.1	27.6	30.8	19.3	25.3	19.6
20년은 더 걸리나 언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24.4	30.7	34.3	37.6	39.7	34.3	37.2	49.4	41.8	46.0
이루어지지 않을 것	6.3	8.2	9.7	11.8	12.8	9.4	8.8	18.0	10.8	21.7

자료: 중앙일보

1994년 혹은 1996년까지 국민들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남북통일 가능성의 시기를 보면 남북통일 가능성의 시기가 점차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8년의 경우에는 통일이 5년 이내 및 5-10년 이내에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이 각각 8.2%와 33.8%로, 이를 합하면 42%의 응답자가 통일이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98년의 경우 20년은 더 걸리나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응답자는 24%,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응답자는 6.3%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통일을 낙관적이고 비교적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다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통일을 예상하는 시기는 계속 늦추어지고 있다. 2008년에는 5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불과 1.7%만을 차지하고 있고, 5-10년 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응답하는 경우도 전체의 11%에 불과하다. 5-10년 정도 걸린다는지, 10-20년 정도 걸린다는지 등 과거보다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 비율도 시일이 지날수록 계속 감소하고 있다. 심지어는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국민들의 통일에의 기대감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았지만, 2001년에 통일이 5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은 1.6%로 가장 낮다. 반면에 20년 이후 언젠가 혹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은 1999년보다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2008년에는 남북통일이 20년 이후에 언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률이 46%로 다수를 차지하고, 남북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예상하는 응답률도 21.7%로 “5년 이내” “5-10년” “10-20년” 걸릴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앙일보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와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 <표 14>를 보면 시기별로 상승과 하강을 기록하는 진동(fluctuation)이 보이긴 하지만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등의 기간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반면에 “30년 이상” 이나 “불가능” 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8년에는 남북통일이 5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은 2.3%에

불과했고 반면에 3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응답은 2007년에 13.8%에서 2008년에 24.9%로 크게 증가했다. 통일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비율도 22.3%로 중앙일보의 2008년도 조사에서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인 21.7%와 매우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14> 남북통일 가능성의 시기, 2007-2010

시기	2007	2008	2009	2010
5년 이내	3.7	2.3	2.8	3.4
10년 이내	23.5	13.0	16.9	17.8
20년 이내	30.8	22.1	27.6	24.1
30년 이내	14.7	15.5	16.2	13.4
30년 이상	13.8	24.9	16.5	20.8
불가능	13.3	22.3	19.8	20.6
모름/무응답	0.2	-	0.1	-

자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통일 가능성의 시기에 관한 이 절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87년을 지나면서 통일의 가능성이 커졌다고 응답하는 국민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기도 매우 짧아진다. 국민 가운데 남북통일이 5년 이내 혹은 10년 이내에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1987, 1988년을 즈음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5, 1996년을 지나면서 남북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시기는 점차 길어지기 시작한다. 중앙일보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조사한 결과는 이 기간 동안 한국인의 통일 가능성에 대한 예상이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심지어는 남한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져도 남북통일이 가능한 시기는 앞당겨지지 않는다. 국민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북통일이 가능한 시기를 매우 늦춰 보고 있으며, 남북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하에서 햇볕정책이 실시되면서 전쟁 발발 가능성 및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이 낮아지고 남북통일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남북 간에 전쟁이나 분쟁 가능성은 낮아졌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통일가능성의 시기가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예상이 실제로 남북통일 가능성에 대한 예상인지 아니면 통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져 통일이 안되거나 혹은 좀 더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반영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어쨌든 일관성 있게 남북통일 가능성의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발견이라고 말할 수 있다.

6.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의 장기적 변화

한국인은 한국사회에서 통일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통일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통일의 당위성, 필요성, 중요성은 모두 같거나 혹은 비슷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절에서는 통일에 관한 사회조사에서 통일의 당위성,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 한국인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남북통일의 당위성에 관한 태도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진술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할 수 있다. 다음 <표 15>는 1995년부터 남북한 통일의 당위성에 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15>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진술에 대한 응답, 1995-2008

당위성	1995	1998	19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반드시 통일되어야	58.0	47.9	42.2	22.0	20.0	16.2	17.4	17.1	12.4	15.5	12.3
가급적 통일되어야	34.3	34.6	36.7	49.4	50.1	42.8	47.8	44.3	41.7	42.0	42.5
현재대호가 좋다		13.9	16.2	23.4	23.3	31.6	28.3	28.5	32.1	34.1	33.6
가급적 통일되지 말아야	7.7	2.5	3.1	4.1	5.7	7.0	4.6	8.4	10.8	7.3	9.2
결코 통일해서는 안된다		1.1	1.8	1.1	0.9	2.5	1.8	1.7	3.1	1.1	2.5

자료: 1995 민족통일연구원; 1998-2008 중앙일보

1995년 민족통일연구원의 조사에서 남한과 북한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58%를 기록하고 있다. “가급적 통일되어야” 한다는 비율도 34.3%이다. 1995년 조사에서는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범주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 가급적 통일되어야 한다는 비율까지 합하면 92.3%의 국민이 남한과 북한은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통일의 당위성은 약화되고 있다. 특히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태도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놀랍게도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직전 해인 1999년과 직후 해인 2001년 사이에 남한과 북한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은 42.2%에서 22%로 무려 22.2% 포인트나 감소하고 있다. 약간의 부침은 있지만 1995년 이후 2008년에 이르기까지 남한과 북한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남북통일의 강한 당위성을 지닌 국민의 비율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강한 당위성은 감소하면서 “가급적 통일되어야” 한다는 약한 당위성의 태도는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2년에 “가급적 통일되어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50%를 기록한 후 이후에는 2008년까지 다시 감소추세로 접어들었다. 그 결과 남북통일의 강한 당위성과 약한 당위성을 합한 비율은 2008년 현재 55%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인이라면 마치 통일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 남북이 분단된 현재가 좋다거나 아니면 가급적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결코 통일해서는 안된다는, 통일에 반대하는 태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분단상태인 현재대호가 좋다는 태도를 지닌 응답자의 비율이 1998년에는 13.9%에 불과했는데, 10년 후인 2008년에는 두 배도 훨씬 더 되는 33.6%의 응답자가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기 보다는 현재대호가 좋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통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반(反)통일적인 태도도 비율은 낮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2008년 현재에는 남한과 통일이 가급적 혹은 결코 통일되어서는 안된다는 반통일적인 태도를 지닌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10%를 넘어서고 있다. 2006년에는 반통일적인 태도를 가진 비율이 14%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제는 한국사회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 가사에 국민 모두가 가슴뭉클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국민의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만 가슴뭉클할지 모른다. 국민의 1/10 이상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사에 반감을 드러낼 수도 있다. 국민의 1/3 이상

은 “통일이 꼭 좋은 것이 아니”라는 태도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들을지도 모른다. 21세기의 첫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통일의 당위성이 현저히 약화된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의 당위성은 남북통일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통일의 필요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남한과 북한의 통일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북통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반면에 남한과 북한의 통일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북한의 통일은 필요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동전의 양면같은 관계일 수 있다.

남북통일의 필요성에 관해 시계열적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2000년대 자료에 한정되어 있다. 하나는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역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일의식조사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나타난 남북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자.

<표 16> 남북통일의 필요성, 2003-2009

필요성	2003	2006	2007	2008	2009
매우 필요하다	37.6	35.1	35.8	33.0	33.1
다소 필요하다	40.7	37.8	37.9	38.9	37.6
별로 필요하지 않다	17.0	22.0	21.4	22.6	22.5
전혀 필요하지 않다	3.4	3.9	4.5	4.6	5.6
모르겠다/무응답	1.2	1.2	0.3	0.9	1.2

자료: 한국종합사회조사

<표 16>은 남북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중간값을 없애고 4점 척도로 측정된 태도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남북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는 태도는 2003년 37.6%에서 2009년에는 33.1%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통일이 다소 필요하다는 약한 필요성의 태도도 2003년에 40.7%에서 2009년에는 37.6%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남북통일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약한 부정은 2003년에 17%에서 2009년에 22.5%로 5% 포인트 이상 증가하고 있다.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강하게 부정하는 태도도 크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인다.

<표 15>의 중앙일보 조사에서 남한과 북한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식의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응답보다는 완만하지만,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태도에서도 역시 한국인의 통일에 대한 의식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응답의 경향은 동일한 문항에 대해 “그저 그렇다” 혹은 “보통”이라는 중간값을 포함한 5점 척도로 측정된 결과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표 17>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17> 남북통일의 필요성, 2007-2010

필요성	2007	2008	2009	2010
매우 필요하다	34.4	25.9	24.7	27.3
약간 필요하다	29.4	25.7	31.1	31.8
그저 그렇다	21.1	23.4	23.6	20.4
별로 필요하지 않다	12.7	19.6	18.2	16.8
전혀 필요하지 않다	2.4	5.4	4.4	4.0

자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먼저 “그저 그렇다”라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비율은 2007년의 21%에서 2008년의 23.4%, 2009년 23.6%로 약간 상승하지만 2010년에 다시 20.4%로 감소하며 큰 차이가 없는 변화를 보여준다. 반면에 남북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는 태도는 2007년에 34.4%에서 2008년에 25.9%, 2009년에 24.7%로 계속 감소하고 2010년에는 27.3%로 다시 약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과 2010년을 비교하면 남북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는 태도는 7% 포인트 이상 감소하고 있다.

반대로 남북통일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태도는 2007년에 12.7%에서 2008년에는 19.6%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후에는 약간씩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2007년과 2010년을 비교하면 통일의 필요성을 약하게 부정하는 태도가 4% 포인트 이상 증가하고 있다. 또한 남북통일을 강하게 부정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4점 척도로 측정하든, 서울대 통일의식조사에서 5점 척도로 측정하든 2000년대 후반에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통일의 당위성이 감소하고 있음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태도가 약화되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약화되고 있다고 해서 통일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중요성도 감소한다고 할 수 있을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통일은 꼭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통일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통일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중요성과 동일한 방향 및 동일한 정도로 변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 <표 18>은 통일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 18> 통일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한 응답

중요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매우 중요함	24.3	38.5	35.4	42.0	45.6	44.2
다소 중요함	31.9	24.9	45.3	40.3	34.8	40.6
보통	29.3	27.3	13.4	-	-	-
별로 중요하지 않음	13.2	7.0	4.0	16.1	17.7	14.1
전혀 중요하지 않음	1.3	2.3	0.9	1.2	1.5	0.8
무응답	-	-	-	0.2	0.5	0.3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 2008년 조사부터는 4점 척도를 사용함

<표 18>에 나타난 기간인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통일의 당위성이나 통일의 필요성

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고 오히려 반통일적인 태도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표 18>에서 보여주는, 한국사회에서 통일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는 통일의 당위성이나 통일의 필요성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 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통일은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통일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와 관계없이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통일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5점 척도를 사용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조사에서는 “보통”이라는 범주를 사용하고 있다. 2005년에는 통일이 한국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회문제인가 라는 질문에 29.3%의 응답자가 보통이라는 값을 선택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24.3%)라거나 다소 중요한 문제(31.9%)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보통의 범주를 선택한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7년에는 보통의 값을 선택한 비율이 13.4%로 크게 낮아졌다. 이렇게 보통의 범주를 선택한 비율이 낮아진 2007년에 통일이 한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비율은 35.4%이고 다소 중요한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은 45.3%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래서 2007년 현재 통일이 한국사회에서 매우 혹은 다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에 이르렀다.

“보통”의 범주를 없애고 4점 척도를 채택한 2008년에서 2010년까지의 조사에서는 통일이 매우 중요하거나 다소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비율이 80.4%(2009년)에서 84.8%(2010년)년까지 매우 높게 나타난다. 반면에 통일이 한국사회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밝힌 비율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최고 2.3%에 불과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2005년에 13.2%에서 2009년에 17.7%로 큰 변화 없이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2000년대에 한국인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통일의 당위성이나 통일의 필요성은 약화되고 있지만, 통일이 한국사회의 중요한 문제라는 태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통일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통일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강화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통일을 선호하지 않지만, 통일은 여전히 한국사회의 중요한 문제이고, 통일이 이루어지면 한국사회는 전혀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되고 이는 개인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7. 통일의 이유의 장기적 변화

한국인은 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할 때 가슴이 뭉클함을 느꼈다면 그것은 분명 남한과 북한은 동일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일한 민족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은 얼마나 사실일까.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해왔을까. 다음 <표 19>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혹은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에 걸쳐 보여주고 있다.

1994년과 2005년에 실시된 민족통일연구원의 조사에서 1994년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59%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제일의 이유로 민족의 재결합을 꼽았다. 같은 민족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같은 민족은 다시 재결합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가장 강했다. 전쟁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입장과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둘 다 14%를 기록하고 있다. 1995년 현재 통일이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은 비교적 소수 의견으로 밀려나고 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같은 민족의 재결합이라는 정서에 호소하는 이유가 제일 앞서고 있고,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조건이라는 실리적 이유와 전쟁발발의 방지라는 실리적 이유는 비슷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19> 통일이 필요한 이유, 1994-2010

통일의 이유	1994	2005	2007	2008	2009	2010
민족의 재결합/ 같은 민족이니까	59.0	35.0	50.6	57.9	44.0	43.0
이산가족 고통해소/이산가족의 고통 해결	11.0	11.4	8.9	6.8	8.5	7.0
전쟁발발방지/ 남북간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14.6	20.4	19.2	14.5	23.4	24.1
북한주민생활향상/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1.2	3.2	1.8	2.8	4.2	4.0
선진국진입/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14.2	27.9	18.7	17.1	18.6	20.7
무응답/기타	-	2.1	1.0	0.9	1.4	-

자료: 1994, 2005 민족통일연구원; 2007-2010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주: 1) 민족통일연구원의 조사에서 2005년도에는 “선진국 진입” 대신 “경제발전”으로 표기함.

2) 이탤릭체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조사에서의 워딩임.

1995년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1996년의 다른 자료를 통해 확인해보자. 1996년에 공보처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통일의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선택지를 없애고,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 잘 산다든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영향력이 커진다는지, 전쟁의 위협을 없앨 수 있다는지 등의 실리적인 이유만 제시하고 통일의 이유를 측정하였다.

<표 20> 통일의 이유, 1996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 더 잘 살 수 있으므로	통일이 되면 전쟁의 위협이 없어지므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커지므로	이산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타
20.3	22.2	34.9	15.1	7.4

자료: 공보처

<표 20>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커지므로 통일이 필요하다는 태도가 3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전쟁발발 방지(22.2%), 경제적인 발전(20.3%)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과 경제적인 발전을 하나로 묶어보면 1996년 현재 우리 국민은 통일을 경제발전과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증대라는 실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남북간 대치에 따른 분쟁과 전쟁의 위협에는 상대적으로 문제의식이 적음을 알 수 있다. 1996년 공보처의 조사결과는 1995년 민족통일연구원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우리 국민이 통일의 필요성을 전쟁발발 방지보다도 한국의 경제성장이나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대라는 실리적 이유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표 19>로 돌아가 2000년대에 통일의 필요성은 어떤 이유에서 주장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2005년의 민족통일연구원의 조사에서는 1994년에 비해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보인다. 같은 민족이 헤어져 있어 재결합해야 한다는 정서적인 이유가 35%로 가장 높

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1994년의 응답경향과 비교하면 큰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이유(27.9%)와 전쟁발발 방지에 통일이 필요하다는(20.4%), 매우 실리적인 이유를 드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5년 김대중 정권에서 햇볕정책이 실시되고 있었던 당시에는 실리적인 이유로서 전쟁발발 방지보다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통일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런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통일의식조사에서는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 2005년의 민족통일연구원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다시 같은 민족이니까 라는 정서적 이유가 통일이 필요한 강한 이유로 등장한다. 2007년에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는 태도가 51%로 높게 나타나고, 2008년에는 58%로 한층 더 높아진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2년째인 2009년과 그 다음 해인 2010년에는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이 필요하다는 태도는 43%대로 감소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이 필요하다는 태도가 가장 강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정서적 이유 다음에 두 가지의 실리적 이유인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태도와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태도 사이에서 2007년 이후에는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태도가 좀 더 높게 나타난다. 2007년의 경우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태도가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태도보다 약간 높다. 그러나 2008년에는 전쟁위협을 피하기 위해서보다는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태도가 약간 더 강하다. 그러나 다시 2009년과 2010년에 남북한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태도보다는 남북간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태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9년에는 남북한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3.4%인 반면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18.6%로 5% 포인트 가량 낮다. 2010년에도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한국인 선진국 진입에 필요하다는 비율보다 높다.

이 절의 분석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한국인 사이에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여전히 같은 민족이 분단된 남과 북으로 헤어져 있어 재결합을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가장 강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같은 민족이니까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태도는 조금씩 약화되고 있다.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소수의 의견으로 나타난다. 이산가족 고통해소는 더 이상 한반도에서 통일이 되어야 하는 주요한 이유가 아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되어야 한다는 정서적 이유 외에는 전쟁발발 방지와 한국이 선진국 진입을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실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이 가운데 이명박 정부 이전에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는 경제적 이유가 더 강해졌었지만, 남북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최근에는 남북간에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실리적 이유보다도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실리적 이유가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8. 북한에 대한 인식의 장기적 변화

북한에 대한 인식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수시로 발생하는 시기적 요인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식은 늘 변한다. 그러나 단순히 변한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 우리

가 관심을 갖는 것은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에 어떤 방향성이 있는가의 여부이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큰 문제가 없을 때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러다 북한의 미사일실험, 핵실험, 해상 도발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으로 변한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부정적 인식을 초래한 사건의 여파가 가라앉으면 북한에 대한 인식은 다시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처럼 긍정과 부정을 반복하면서도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어떤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절에서는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본다.

1980년대 후반에 실시되었던 북한과 통일 관련 조사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설문항이 개발, 이용되었다. 북한을 포함해서 한반도의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열강을 등장시켜, 이 국가들이 서로 축구경기를 벌인다고 할 때 누구를 응원하겠냐는 물음을 던져 남한 주민이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측정했었다. 다음 <표 21>은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축구경기를 한다고 가정할 때 어느 편을 응원하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표 21> 축구경기에서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응답, 1986-1994

경기대상	1986	1987	1988	1989	1990	1993	1994
미국 : 북한	21.3	55.1	58.1	71.2	82.0	71.8	80.9
일본 : 북한	43.9	72.7	72.2	81.1	92.0	88.1	94.7

자료: 1986, 1987, 1988, 1990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89 서울대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1993, 1994 민족통일연구원

1986년에 미국과 북한이 축구경기를 벌인다면 누구를 응원하겠냐는 질문에 한국인의 21%만이 북한을 응원하겠다고 응답했다. 그 당시는 북한이라고도 잘 표현하지 않고 주로 북괴라고 표현하던 시절이었고, 남한과 북한이 냉전 상태에 있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북한이 미국과 경기를 벌인다면 대다수 국민이 북한 아닌 미국을 응원하겠다고 응답했었다. 그런데 1년 후인 1987년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1987년 6□29 선언 이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축구경기를 벌인다면 미국보다도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비율이 북한보다 미국을 응원하겠다는 비율보다 더 높아졌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미국 아닌 북한을 응원하겠다고 응답한 것이다. 1988년에도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비율이 1987년에 비해 약간 더 높아진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치른 다음 해인 1989년에는 미국과 북한이 축구경기를 벌이는 경우 미국보다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비율이 70%를 넘어섰고, 1990년에는 80%를 넘어섰다.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미국과 북한의 축구 경기에서 미국보다 북한을 응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북한을 북괴라고 부르면서 냉전 상태에 있었던 시절에서 불과 2-3년이 지나면서 북한을 남한과 같은 민족으로 받아들이면서 축구경기에서 북한을 편들고 나선 것이다. 이런 사정은 1990년대 초 민족통일연구원의 조사결과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 비해 일본과 북한이 축구경기를 하는 경우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비율이 매우 빠르고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북한과 냉전기인 1986년에도 일본과 북한이 축구경기를 하면 일본보다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비율이 44%로 국민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었다. 1987년에는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일본과 북한의 축구경기가 열린다면 이미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일본과는 과거 식민지경험에서 비롯된 반일감정이 강하게 남아있어 비록 남한과 북한이 냉전 상태에 있어도 일본보다는 북한을 편들겠다는 태도가 일찍부터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의 열방인 미국을 응원하겠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1986년에 비해 1년 후인 1987년에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1989년부터 북한을 응원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질 정도로 북한에 대한 호의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

1990년대 초반까지 축구경기를 가상하여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측정한 조사가 실시되었고, 이후 2008년부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에서 다시 축구경기 문항을 이용하여 북한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고 있다. 다음 <표 22>는 미국과 북한이 월드컵에서 경기를 하는 경우 어느 팀을 응원할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22> 미국과 북한 경기에서 응원하는 팀

응원하는 팀	2008	2009	2010
북한팀	76.1	68.0	70.1
미국팀	6.6	8.4	8.6
양팀 모두	6.4	9.8	9.9
어느 팀도 응원 안함	10.9	13.6	10.9
멋진 플레이 보이는 팀/열심히 하는 팀	-	0.1	0.1
모름/무응답	0.1	0.1	0.3

자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통일의식조사 문항에서는 선택지가 훨씬 다양해졌다. 단순히 미국과 북한 둘 가운데서 하나를 고르도록 요구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선택지가 추가되었다. <표 19> 등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측정할 때 2008년에 비해 2009년, 2010년의 응답이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좀 더 높아졌듯이 북한과 미국이 축구경기를 할 때 2008년에는 북한팀을 응원하겠다는 비율이 76%였는데, 2009년과 2010년에는 68%와 70%로 약간 낮아졌다. 반면에 미국팀을 응원하겠다는 비율은 2008년에는 6.6%였는데,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8.4%와 8.6%로 약간 높아졌다. 한편 양팀 모두 응원하겠다는 응답도 2008년에 비해 2009년과 2010년에는 약간 더 높아졌다. <표 22>에 나타난 결과는 북한과 미국이 축구경기를 하는 경우, 축구경기라는 특성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미국보다는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응답이 여전히 높고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축구경기를 이용한 설문항이 통일관련 조사에서 실시되지 않아 더 이상 시계열적 분석을 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같은 민족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1980년대 후반에 크게 변하였고, 그 기본적인 기초가 통일의 필요성의 이유라든지 축구경기를 할 때 미국보다도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비율로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반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변한다. 의식이나 태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늘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변할 수밖에 없

3) 1986년에 미국과 북한이 축구경기를 하는 경우 북한보다 미국을 응원하겠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 당시 조사에 참가한 응답자의 솔직한 태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1986년 당시는 전두환 정권시절로 일반사회조사에서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응답을 거부하거나 “안전”한 답을 골라 응답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1986년의 응답이 당시 국민의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약간 왜곡현상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

남북이 냉전기에 있을 때에는 북한은 경계대상이거나 적대대상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극심한 수준의 냉전기를 벗어난 후에는 북한을 꼭 적대대상이거나 경계대상만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과연 남한의 주민들은 북한을 어떻게 인식해 왔을까. 그리고 그 인식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 가능한 자료는 대략 세 가지가 존재한다. 하나는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가 실시하는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실시하는 통일의식조사 자료이며 나머지 하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료이다. 이 가운데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와 통일의식조사 자료는 척도만 약간 다르고 상호보완성이 강하다. 반면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실시한 조사 자료는 비교가 어렵다. 여기서는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와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다음 <표 23>은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나타난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 23> 북한에 대한 인식

대상	1993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구호대상	50.8	20.8	20.8	16.4	18.0	20.5	19.2	14.3
협력대상	28.7	36.6	36.6	42.8	37.3	39.5	35.2	32.1
경계대상*	5.7	29.5	29.5	26.7	31.7	28.5	33.4	35.0
적대대상	14.3	9.1	9.1	9.1	10.5	9.7	10.5	15.8
기타/무응답	0.4	4.0	4.0	5.0	2.5	1.7	1.7	2.4

자료: 1993 민족통일연구원; 2003-2009 한국종합사회조사

주: 1993년 민족통일연구원 조사에서는 경계대상이 아니라 경쟁대상이었음.

1993년의 민족통일연구원 조사에서는 북한을 구호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당시 북한이 식량난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아사자가 속출하는 상황이었으며, 북한에서는 소위 고난의 행군 기간이었기 때문에 남한 주민들은 북한을 구호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적대대상으로 인식한 비율은 14.3%였고,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한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은 28.7%였다.

10년이 지난 2003년에는 북한을 남한의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제일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37%가 북한을 남한의 협력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보다는 적지만 응답자의 30%는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9%는 북한을 여전히 적대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2003년 현재 핵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북한을 구호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민도 5명당 1명꼴로 존재했었다.

이후 2008년까지는 북한을 남한의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햇볕정책이 실시되고 있었던 2005년에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43%에 이르렀고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6.7%로 낮아졌다. 구호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16.4%로 낮아졌었다. 2007년까지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는데, 2008년부터 북한을 협력대상보다는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 전개되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2009년에는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35%인데 반해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32%에 머물렀다.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그동안 계속 감소추세였는데, 2009년에는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15.8%로 급등하

였다.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발견한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민족통일연구원과 서울대 통일 의식조사의 자료로 다시 확인해보자. 다음 <표 24>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 24> 북한에 대한 인식

년도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1994	39.2	20.4	2.5	30.7	7.1
1995	11.7	25.2	3.5	43.7	15.9
1996	22.3	45.9	4.0	6.3	19.2
1998	12.4	24.8	3.3	40.6	13.8
1999	19.3	32.6	3.1	28.7	8.2
2003	11.8	46.1	2.7	31.4	7.8
2005	23.1	41.8	4.0	20.9	10.2
2007	21.8	56.6	3.3	11.8	6.6
2008	21.9	57.6	3.8	11.3	5.3
2009	17.3	50.7	2.3	20.6	9.0
2010	19.3	44.7	3.3	20.7	12.0

자료: 1994, 1995, 1998, 1999, 2005 민족통일연구원; 1996, 2003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07-2010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표 24>에 나타난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의 변화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남북간 관계의 경색과 완화 등 여러 시기적 요인의 영향에 따라 쉽게 변할 수 있음을 반증한다. 예를 들어 1994년과 1995년의 1년 사이에도 북한을 지원대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39.2%에서 11.7%로 크게 변한다. 또한 북한을 적대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도 1993년의 7.1%에서 1994년에는 15.9%로 크게 증가한다.

다른 조사인 1996년의 서울대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북한의 인식이 또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1996년의 서울대 조사에서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46%로 1995년과 1998년의 민족통일연구원의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다.

이런 현상은 실제 남한과 북한간의 관계가 1990년대 초반에 경색과 완화를 거듭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고, 조사의 완전성에 차이가 있어서 조사결과가 이처럼 매우 다른 양상을 낳았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말한다면 1990년대 전반기나 후반기 모두 아직은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경계대상이나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햇볕정책이 실시되며 남북한 관계가 경색국면에서 벗어나면서 국민의 북한 인식은 크게 변하였다. 1998년에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했던 비율이 24.8%였는데, 1999년에는 32.6%로, 다시 2000년에는 46.1%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2005년에는 41.8%로 약간 주춤하였지만 2007년에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56.6%로 다시 높아졌다. 그러다가 남북관계가 경색기에 접어드는 2009년부터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대신 경계대상이나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표 24>를 통해 남한 주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1990년대에는 여전히 북한을 경계대상이나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강했지만, 1990년대 말부터 햇볕정책이 실시되고, 남북

관계의 경색국면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들은 급속하게 북한을 경계나 적대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북한에 대한 인식은 남북관계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2009년과 2010년에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줄고 대신 경계대상이나 적대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남북관계, 시기적 요인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일의 파트너로서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9. 결론

이 연구는 통일과 북한에 대해 국민의 의식과 태도 혹은 인식이 지난 30여년 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 장기적인 변동의 일단을 이해하려는 시도였다.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은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첫째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나 태도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경색되면 일반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인 경향이 강해진다. 반면에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순조로우면 국민의 북한 인식도 긍정적인 경향이 강해진다. 둘째, 시기적인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빈곤상황, 북한의 미사일실험이나 핵실험, 해상에서의 도발, 정상회담 등은 통일과 북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별로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지만, 이 연구를 통해 통일에 대한 태도나 인식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분단의 고착화에 따른 통일에 대한 관심의 퇴조, 통일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통일가능성의 시기나 통일의 당위성, 필요성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할 수 있는 반면,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통일이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통일에 대한 태도의 장기적 변화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관계가 냉전기였다고 할 수 있는 1985년, 1986년까지는 한국인들 사이에 어떤 체제가 될지 몰라도 통일을 빨리 이루어야 한다는 태도를 지닌 비율이 전체 국민의 1/5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색된 남북관계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1988년부터는 남북한이 무조건 빨리 통일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나타내는 국민들의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대신 통일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든지, 북한을 자유민주주의로 전환한 후 통일해야 한다는 식의 신중한 태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또한 분단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남과 북의 격차가 커지면서 통일하는 것보다 현재와 같이 분단상태로 머무는 것이 낫다는 태도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둘째, 1987년을 지나면서 통일의 가능성이 커졌다고 응답하는 국민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통일이 가능하다고 예상하는 시기도 매우 짧아진다. 국민 가운데 남북통일이 5년 이내 혹은 10년 이내에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1987, 1988년을 즈음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5, 1996년을 지나면서 남북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시기는 다시 점차 길어지기 시작한다. 중앙일보의 1998년부터 2008년까지의 조사 결과는 이 기간 동안 한국인의 통일 가능성에 대한 예상이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심지어는 남한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져도 남북통일이 가능한 시기는 앞당

겨지지 않는다.

한국인은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북통일이 가능한 시기를 매우 늦춰 보고 있으며, 남북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하에서 햇볕정책이 실시되면서 전쟁 발발 가능성 및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이 낮아지고 남북통일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다. 비록 남북 간에 전쟁이나 분쟁 가능성은 낮아졌을지 모르지만 국민은 통일가능성의 시기가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예상이 실제로 남북통일 가능성에 대한 예상인지 아니면 통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져 통일이 안 되거나 혹은 좀 더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반영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어쨌든 일관성 있게 남북통일 가능성의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한국인 사이에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는 여전히 같은 민족이 분단된 남과 북으로 떨어져 있어 재결합을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가장 강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같은 민족이니까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태도는 조금씩 약화되고 있다.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다.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되어야 한다는 정서적 이유 외에는 전쟁발발 방지와 한국이 선진국 진입을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실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이 가운데 이명박 정부 이전에는 한국이 선진국 진입에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는 경제적 이유가 더 강해졌었지만, 남북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최근에는 경제적인 실리적 이유보다도 남북 간에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실리적 이유가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북한에 대한 인식은 1980년대 후반에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축구경기를 가정한 상황에서 미국이나 일본보다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비율이 1980년 후반에는 한 해가 지날수록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런 결과는 남북관계가 냉전기를 지나면서 같은 민족으로서의 북한을 재발견한데서 유래했다고 보여진다.

1990년대까지는 북한에 대한 인식은 경계대상이거나 적대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햇볕정책이 실시되고 남한과 북한 사이에 경색 국면이 조금씩 해소되면서 일반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도 경계대상에서 협력대상으로 급속히 변화하였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2009년 이후에는 다시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감소하고 대신 경계대상이나 적대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통일에 관한 의식과 태도의 장기적 변화를 추적하는 연구과제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처럼 통일에 관한 의식과 태도의 장기적 변화를 추적하는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차원의 연구요소가 필수적이다. 첫째는 현재의 이 연구처럼 통일과 북한에 관한 각 하위영역에서 국민의 의식과 태도의 장기적 변동에 관한 기술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통일과 북한에 관한 의식과 태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하위영역은 통일, 북한, 주위 열강에 대한 태도, 주한미군에 대한 태도, 핵에 대한 태도, 북한사회에 대한 인식 등 수많은 하위 영역이 존재한다. 한 연구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다. 따라서 무슨 근거로 연구에서 취급할 하위영역을 설정할 것인지 밝히고 통일과 북한에 관한 기술적 분석을 실행해야 한다. 둘째는 통일과 북한에 관한 의식과 태도의 장기적 변동 속에서 내재적인 차이를 밝히는 것이다. 즉 방향성이 있는 변동 속에서도, 예를 들면, 성, 연령, 교육수준, 지역, 정치적 지향성 등의 요인에 따라 의식과 태도의 변이가 존재할 수 있다. 시기별로 통일에 대한 의식과 태도의 내적 차별성과 변이를 설명하는 연구가 두 번째 필수요소이다. 셋째, 시

기적인 요인의 영향을 관별하는 것이다. 특히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의식과 태도는 남북관계 및 시기적 사건, 시기적 요인에 의해 등락과 부침을 거듭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혹은 가정이 지난 수십 년간 한국사회에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의식과 태도에도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야 한다. 넷째, 여러 현상의 내재적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통일비용의 증가와 통일가능성의 시기와의 관계 등 통일과 북한에 대한 태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많다. 그러나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일 수 있지만, 통일문제의 중요성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통일에 관한 의식의 여러 현상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해명해야 할 요소이다.

통일에 관한 의식과 태도의 장기적 변화에 관한 연구가 완전한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네 요소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위의 네 측면을 다 다루지 않았다. 우선 통일과 북한에 관한 의식과 태도의 장기적 변화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몇 영역을 고르고, 이 영역에서 지난 30여년에 걸쳐 국민의 의식과 태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방향성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즉 위의 네 요소 가운데 첫 번째 요소인 장기적 변동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 장기적 변동의 그림을 그려보는 시도가 현재 이 연구의 내용이다.

* 참고문헌과 본문에서의 기존연구 인용 등은 분량관계로 생략함.